

# 한국 교육 개발원 업무 소개

—과학 교육 연구실 업무를 중심으로—



한국 교육 개발원 권 재 술



한국 교육이 당면한 중대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초·중학교의 팽창과 중학교 무시령 진학에 의한 교육 제원의 부족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의 저하, 교수-학습 방법의 진근대성, 지역간의 격차, 현실과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 부족, 청소년의 도덕적 문제와 가치관의 혼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교육의 제반 문제를 종합적이고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의 필요성은 이미 1970년에 장기 종합 교육 계획 심의회가 건의한 바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조사단도 한국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초·중학교의 전반적 교육 체제 개발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1972년 8월 재단법인 한국 교육 개발원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한국 교육 개발원의 업무를 대별하여 보면 초·중학교 교육 발전 사업(EMP), 교육 정책 연구 사업, 그리고 수탁 연구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과학 교육 연구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초·중학교 발전 사업을 간단히 소개하고 과학 교육 연구실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과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가) 초·중학교 발전 사업

초·중학교 발전 사업은 개발원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혁신 사업으로써,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교육 효능도가 높은 새 교육 체제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현재 초·중학교 교육 체제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 이론이 있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그 이론의 적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혁신해 보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초

·중학교 발전 사업은 바로 교육 이론과 현장 교육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일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학교 발전 사업은 과거에 흔히 있었던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혁신 연구·개발 사업과는 달리, 교육 체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혁을 시도하려는 일종의 체제 개발 사업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새 수업 체제와 경영 체제를 개발하고, 방송 매체를 교육 현장에 투입하여 이에 그 효과가 수차(4차의 소규모 시범과 2차에 걸친 종합시범)에 걸쳐 검증되었으며, 전국화를 위해서 계속 연구중에 있다.

## (나) 과학 교육 연구실의 실적과 업무

과학 교육 연구실의 업무는 대부분이 초·중학교 발전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과학 교육 연구실에서 해온 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국민 학교 교육 과정 상세화
- (2) 중학교 교육 과정 상세화
- (3) 국민 학교 3~6학년 교사용 수업 지침서 개발
- (4) 국민 학교 3~6학년 학생용 배움책 개발
- (5) 중학교 1학년 1개 단원분 교사용 지침서 및 학생용 배움책 개발
- (6) 교수 텔레비전(ITU) 프로그램 작성
- (7) 교수 라디오(IR) 프로그램 작성
- (8) 제1~제4차 소규모 시범(국민 학교) 실시
- (9) 제1~3차 종합 시범(국민 학교) 실시
- (10) 제1차 소규모 시범(중학교) 실시
- (11) 시범에 필요한 총괄 평가 자료 개발
- (12) 국민 학교 전학년 목표 편람

그 외에도 과학 교육 연구실 자체에서 과학 교육에 관한 기초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장 교사들의 현장에서의 문젯점에 대한 문의와 현장 연구의 지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